

정책자료 94-07

#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曹琮和 · 兪鎮守  
王允鍾 · 金寬濬

1994.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斗 政策對應

曹琮和·俞鎮守  
王允鍾·金寬滸

1994.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金利인하를 둘러싼 EU국가간의 協調體制 弱화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研究院의 曹琮和, 俞鎮守, 金寬濤,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教授(本院 招請研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研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研究結果가 政策當局, 研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 目 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 .....	9
1. 新3低의 實體 .....	9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	12
3. 엔高의 持續 .....	13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	16
5. 國際油價의 安定 .....	19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	21
1. 舊3低時期의 主要 經濟指標 .....	21
2. 國際收支 및 換率 .....	21
3. 對韓通商壓力의 強化 .....	26
4. 景氣 및 物價 .....	28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	31
1. 換率政策 .....	31
2. 通貨金融政策 .....	32
3. 市場開放政策 .....	35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	37
5. 評價 .....	40
IV. 新3低의 效果 .....	45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	45
2. 國際收支와 換率 .....	47
3. 輸出入構造의 變化 .....	52
4. 景氣와 物價 .....	55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	57
1. 換率政策 .....	58
2. 通貨金融政策 .....	59
3. 財政政策 .....	60
4. 貿易政策 .....	61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	63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	64

## 〈表 目 次〉

〈表 I -1〉 新3低의 比較 .....	9
〈表 I -2〉 主要通貨의 對달러 換率 比較 .....	14
〈表 I -3〉 主要예측기관의 換率展望 .....	16
〈表 I -4〉 主要國의 短期金利 推移 .....	17
〈表 I -5〉 主要國 金利의 推移 및 展望 .....	18
〈表 I -6〉 國際油價의 推移 .....	20
〈表 II -1〉 舊3低 時期의 主要 經濟指標 .....	21
〈表 II -2〉 우리나라의 輸出單價 比較 .....	22
〈表 II -3〉 商品別 輸出增加率의 推移 .....	23
〈表 II -4〉 原油 및 資本財 輸入推移 .....	23
〈表 II -5〉 우리나라의 外債 推移 .....	24
〈表 II -6〉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	25
〈表 II -7〉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의 推移 .....	26
〈表 II -8〉 總通貨 推移 .....	29
〈表 II -9〉 貸金, 株價, 地價 및 物價 上昇推移 .....	30
〈表 III -1〉 원貨의 實質實效換率指數 推移 .....	32
〈表 III -2〉 輸入自由化 推移 .....	35
〈表 III -3〉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 .....	37
〈表 IV -1〉 經常收支의 推移 .....	48
〈表 IV -2〉 資本收支의 推移 .....	50
〈表 IV -3〉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 現況 .....	51
〈表 IV -4〉 輸出構造의 變化 .....	53
〈表 IV -5〉 主要 地域別 輸出構造 .....	54
〈表 IV -6〉 財貨 形態別 輸入構造 .....	55

## 〈圖目次〉

〈圖 I -1〉 엔貨換率의 推移 .....	10
〈圖 I -2〉 유로달러金利의 推移 .....	11
〈圖 I -3〉 WTI油價의 推移 .....	11
〈圖 I -4〉 엔貨의 實效換率 推移 .....	15

#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 1. 新3低의 實體

-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低金利 추세, 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94년 4월말 현재 엔貨의 換率은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92년 6월에 비해 약 25%의 가치상승을 나타냄.
- 미국과 일본의 再割引率은 각각 사상최저치인 3.0%와 1.75%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再割引率 등의 金利引下를 단행하여 왔음.
- 國際油價 또한 原油需要不振, OPEC 會員國들의 초과생산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表 I-1〉 新·舊3低의 比較<sup>1)</sup>

	舊 3 低			新 3 低		
	85.6	88.1	변화폭	92.6	94.4 <sup>2)</sup>	변화폭
엔/달러	249.0	127.2	-121.8	126.8	101.5	-25.3
유로달러(3개월물,%)	7.72	6.99	-0.73	3.99	4.31	0.32
WTI油價 (\$/배럴)	27.30	16.94	-10.36	23.38	16.90	-5.48

註 : 1) 기간평균기준, 2) 기말기준

-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88년말까지의 기간이 구3저의 시기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신3저 시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여기서는 92년 하반기부터로 그 始點을 잡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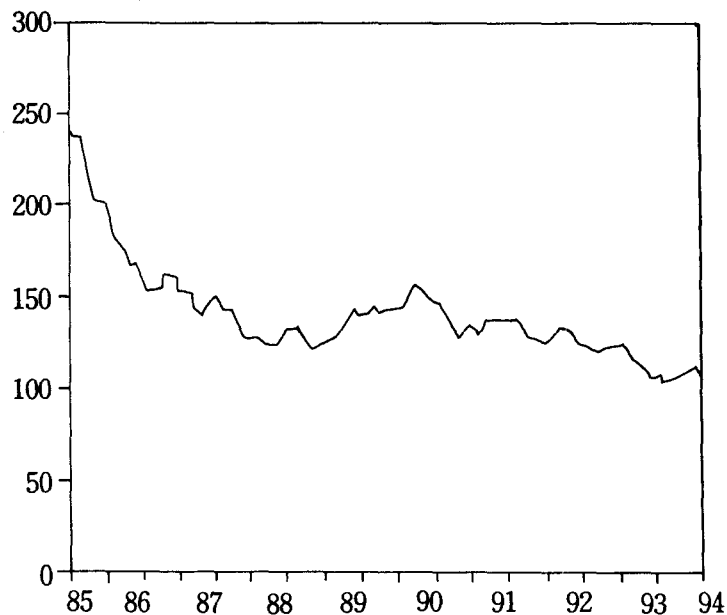
- 9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미국의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赤字가 92년 중반 이후 큰폭의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92년 7월 G-7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UR타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先進國의 政策協調體制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미국관리들의 엔貨강세 유도를 위한 外換市場 개입암시가 이어졌음.

- 독일의 高金利政策으로 영국의 파운드貨와 이탈리아의 리라貨의 가치하락이 계속되자, 영국의 파운드貨와 이탈리아의 리라貨는 92년 9월 유럽換率體系(ERM)를 탈퇴하였으며, 이어지는 유럽외환시장의 혼란은 비교적 안정적인 화폐인 엔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엔貨의 강세를 가져옴.
- 유럽외환시장의 혼란은 독일로 하여금 高金利政策을 후퇴케 하였으며, 그 결과 92년 9월 14일 독일은 再割引率(8.75%→8.25%) 및 롬바르트금리(9.75%→9.50%)의 인하를 단행하였음.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독일의 금리인하는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의 금리인하를 가능케 하였음.
- 92년 9월 에쿠아도르의 石油輸出國機構(OPEC) 탈퇴, OPEC의 주도권쟁탈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대립 등으로 OPEC의 단결력 및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음.

〈圖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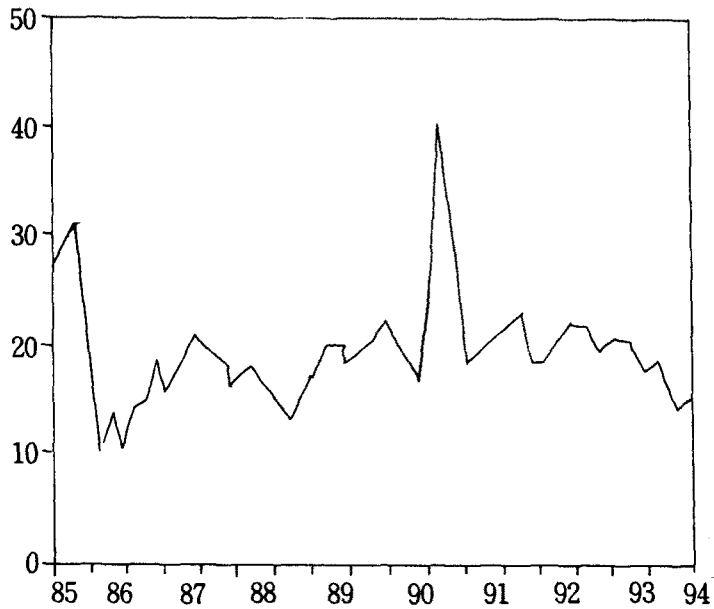
엔貨換率의 推移(엔/달러)



〈圖 I-2〉 유로달러金利의 推移(3개월물, %)



〈圖 I-3〉 WTI油價의 推移(달러/배럴)



—일부에서는 신3저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3저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貿易赤字와 일본의 貿易黒字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호소가와 총리의 사임에 따른 일본의 政局不安 등으로 美·日 通商摩擦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신3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엔貨의 強勢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일본의 金利가 최근 미국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 시현, 일본경제의 미약한 회복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절대적인 수준은 매우 낮음. 더욱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금리수준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國際油價도 原油需要不振, OPEC 會員國들의 단결력 약화와 淸타량 축소실패, 이라크의 수출재개 가능성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低油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表 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엔貨의 환율, 유로달러금리, 국제유가의 수준이 과거 구3저 시기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 3저기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움.

##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구3저와 신3저 모두 국내경기의 침체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침체기의 단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3저는 엔貨의 강세, 油價의 하락세, 低金利 추세라는 점에서는 구3저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3저와 차이점을 나타냄.

- 구3저는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났으나, 최근의 신3저는 世界經濟의 沈滯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구3저 시기중 세계경제는 3-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율은 2%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신3저가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미친 영향은 구3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3저현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換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3저 시기에는 달러貨에 대한 엔貨가치의 상승 정도가 구3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그러나 <表 I -2>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구3저의 경우 달러貨가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가치하락을 나타낸 반면, 신3저의 경우 엔貨만이 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나타냄.
- 구3저가 주요 선진국간 협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신3저는 미·일 간 통상마찰의 심화, 금리인하 등을 둘러싼 EU국가간의 協調體制 弱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신3저 시기에는 중국, 아세안국가 등 新興輸出國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國際競爭力이 잠식되고 선진국시장에서의 競爭 또한 더욱 치열해짐.

### 3. 엔高의 持續

#### 1) 엔貨切上의 배경과 특징

— 구3저 시기의 엔貨가치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經常收支赤字 심화를 타개하기 위한 플라자합의에 기인하였음.

- G-5 국가들은 85년 9월 미국의 財政赤字 축소, 일본 및 서독의 內需擴大, 그리고 달러貨에 대한 주요국 通貨의 切上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하였음.
- 플라자합의의 결과 <表 I -2>에 잘 나타나 있듯이 거의 모든 통화가 달러貨에 대해 가치상승을 나타내었음. 이에 따라 엔貨의 환율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엔貨의 實效換率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음(<圖 I -4> 참조).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가치의 상승을 초기에 억제한 결과, 86년과 87년의 원화 가치 상승폭은 각각 3.3%, 8.7%에 그쳤음.

〈表 I-2〉 주요 통화의 對달러 換率 比較

	舊 3 低			新 3 低		
	85.6	88.1	상승폭(%)	92.6	94.4	상승폭(%)
엔/달러	249.0	127.2	95.8	125.6	101.5	24.9
마르크/달러	3.061	1.676	82.6	1.522	1.650	-7.8
NT\$/달러	39.80	28.61	39.1	24.35	26.41	-7.8
원/달러	873.8	781.6	11.8	790.2	807.5	-2.1

註 : 기말기준

- 구3저 기간중 달러화에 대한 다른 통화들의 대폭적인 切上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화의 가치상승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황, 그리고 대부분 통화의 동반적 가치상승으로 말미암아 이들 국가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100% 가까운 절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들의 동반적인 가치상승, 경기의 상승국면에 따른 투자증대로 구3저 시기의 엔고를 비교적 쉽게 극복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신3저 시기의 달러화의 약세는 일본의 貿易黒字 및 미국의 貿易赤字 증가세로의 반전, 그리고 美·日間 貿易不均衡의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93년중 독일의 高金利政策 고수에 따른 유럽換率體系(ERM)의 혼란은 안정적인 국제통화로서의 엔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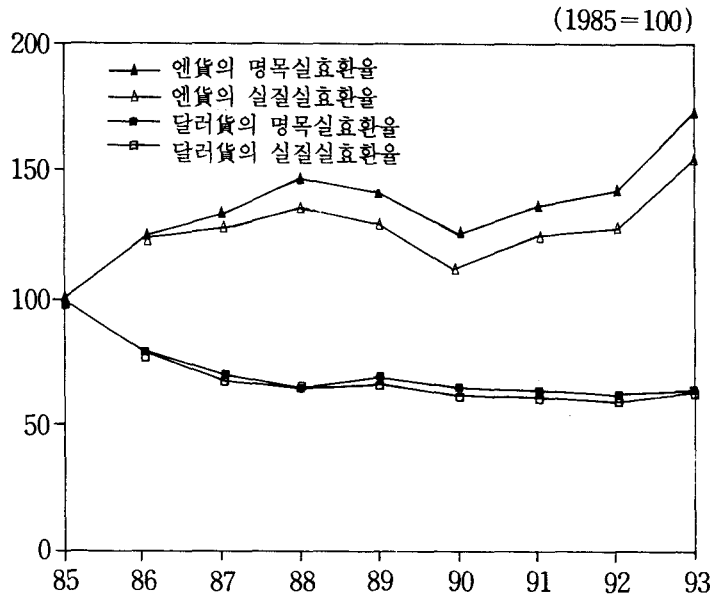
○ 시기적으로 보면, 93년중 강세가 지속되었던 엔화는 일본경제의 침체지속, 政局의 불안 등으로 93년말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에는 美·日 通商 摩擦이 심화되면서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신3저 시기의 달러貨의 약세는 구3저와 같이 달러貨의 전반적인 약세라기보다는 엔貨에 대한 약세라는 특징을 지님.

○〈圖 I-4〉에 나타나 있듯이 신3저 시기의 엔貨 절상이 구3저 시기에 비해 소폭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엔貨의 實效換率은 크게 상승한 반면, 달러貨의 實效換率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음.

○신3저 시기에는 엔高가 거품붕괴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부진을 가져왔고, 오로지 엔貨만이 달러貨에 대한 가치상승을 나타냄으로써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음.

〈圖 I-4〉 엔貨換率의 推移(엔/달러)



2) 향후 換率展望

-향후 엔貨 換率은 日本政局의 향배, 美·日間 通商摩擦의 정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일간의 貿易不均衡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당 100~110엔대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됨.

○ 특히 일본의 政局不安에 따라 대외적인 양보가 어려워짐으로써 美·日間 通商摩擦이 더욱 심화될 경우, 엔貨가치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일부 경제예측기관들은 미국의 利子率 상승에 따라 엔貨가치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워튼계량예측연구소(WEFA)는 94년말 엔貨의 換率이 달러당 117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表 I-3〉 주요예측기관의 換率 展望

	93.12	94.3	94.12		95.12	
			WEFA	DRI	WEFA	DRI
엔/달러	111.8	105.4	117.0	113.0	121.0	108.0
마르크/달러	1.739	1.730	1.795	1.730	1.680	1.720

####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 1) 低金利의 要因 및 金利의 推移

—구3저 시기

○ 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인플레이가 진정됨에 따라 景氣浮揚을 위한 각국의 금리인하가 81년 하반기부터 지속됨. 이에 따라 금리하락세는 구3저 始點보다 약 4년 앞서 시작됨.

—신3저 시기

○ 90년 무렵 世界經濟의 沈滯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주요 선진국들은 景氣를

浮揚시키기 위한 금리인하를 지속함.

- 그러나 금리인하의 始點은 구3저와 달리 국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냄.
  - 미국 : 경기의 후퇴가 다른 선진국보다 빨리 일어나 89년중반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됨.
  - 일본 : 전후 최장의 호황기가 끝난 91년 초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됨.
  - 독일 : 統獨에 따른 인플레이 억제를 위하여 92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등 高金利政策을 유지하다 92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함.

— 景氣浮揚을 위한 주요국의 政策金利引下가 이어져, 국제적인 低金利基調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再割引率은 각각 사상최저치인 3.0%와 1.75%를 기록하고 있음.
- 독일도 景氣의 沈滯가 장기간 지속되자 92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金利引下를 단행하여, 94년 4월말 현재 재할인율은 5.00%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國際金融市場의 金利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94년 4월말 현재 유로달러(3개월물) 금리는 4.31%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비록 93년 4월의 3.19%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로엔 금리도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유로달러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

〈表 I-4〉

主要國의 短期金利 推移<sup>1)</sup>

(단위 : %)

	89	90	91	92	93.6	93.12	94.4
유로달러	9.28	8.31	5.99	3.86	3.34	3.38	4.31
유로엔	5.46	7.76	7.38	4.46	3.14	2.11	2.31
유로마르크	7.09	8.51	9.31	9.52	7.60	6.15	5.38

註 : LIBOR 3개월물, 기간평균 기준(94년 4월 수치는 기말기준)

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94년 4월말 현재 5.38%를 기록하고 있는 유로마르크 금리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2) 향후 金利 展望

—향후 미국과 일본의 金利는 다소 상승하는 반면, 독일의 금리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各種 經濟指標들이 美國經濟의 본격적인 회복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의 金利는 向後 上昇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당분간 미국경제의 성장율이 潛在成長率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판단됨.

- 93년중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日本의 金利도 94년에는 景氣의 회복에 따라 완만하나마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는 대조적으로 獨逸 등 유럽국가들의 短期金利 下落勢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있는 景氣의 浮揚을 위해 추가적인 政策金利 引下措置도 기대됨.

〈表 I-5〉 주요국 金利의 推移 및 展望<sup>1)</sup>

(단위 : %)

	92년	93.6	93.12	94.3	94.6	94.9	94.12
유로달러	3.44	3.25	3.31	3.50	3.29	3.52	3.77
유로엔	3.81	3.19	2.09	2.10	2.48	2.87	3.25
유로마르크	8.75	7.50	5.88	5.79	5.36	4.92	4.49

註 : 1) 3개월물 LIBOR금리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Mar. 1993.

## 5. 國際油價의 安定

### 1) 油價 安定세의 요인

#### -구3저 시기

- 85년 12월 OPEC 정기총회에서 OPEC회원국들은 감산을 통한 油價防禦政策을 포기하는 대신 市場占有率 提高政策을 채택함. 이에 따라 OPEC회원국들의 경쟁적인 과잉생산이 지속됨.

#### -신3저 시기

- 과거에는 석유의 제한된 매장량을 감안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남아있는 매장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됨. 그러나 계속되는 석유의 消費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석유매장량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인식이 바뀌게 됨. 85년말 7,001억배럴이었던 석유확인매장량은 92년말 현재 1조68억배럴로 증가하였음.
- 또한 91년 이후 나타난 世界景氣의 沈滯에 따른 需要不振과 OPEC 회원국의 쿼타량 초과생산, 쿼타량 축소 실패, 걸프전 이후의 쿠웨이트油田 복구, 북해산 原油 생산증가는 油價의 下向 安定勢를 가져옴.

-이와 같은 요인등으로 말미암은 原油의 超過供給으로 國際油價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어 왔음. 다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油價下落에 따른 단기적인 反騰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4월말 현재 두바이유가격은 14.05달러를 기록하여 15달러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美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도 배럴당 16.90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表 I-6〉

## 國際油價의 推移

(단위 : 달러/배럴)

	89	90	91	92	93.6	93.12	94.4
WTI	21.80	28.45	19.68	19.59	18.78	14.17	16.90
브렌트	20.85	28.84	18.39	17.90	17.28	13.32	15.35
두바이	17.75	23.45	15.30	15.75	15.12	12.02	14.05
OPEC평균유가	18.80	24.49	16.62	16.84	15.61	12.15	-

## 2) 향후 展望

一向後 國際油價는 공급과잉 속에서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94년말과 95년말 OPEC평균유가는 각각 배럴당 14.9달러 및 15.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供給面에서 OPEC 産油量 4억 배럴의 불이행, 北海産原油 生産擴大 등으로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반면, 주요 先進國 및 開途國의 需要停滯로 급격한 需要增加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表 II-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84	85	86	87	88	89
GNP(경상,억달러)	824	837	1,027	1,289	1,728	2,112
1인당 GNP(달러)	2,044	2,047	2,503	3,110	4,127	4,968
GNP성장률(%)	8.4	5.4	12.9	13.0	12.4	6.8
도매물가상승률(%)	0.7	0.9	-1.5	0.5	2.7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5	2.8	3.0	7.1	5.7
실업률(%)	3.8	4.0	3.8	3.1	2.5	2.6
경상수지(억달러)	-13.7	-8.9	46.2	98.5	141.6	50.5
무역수지(억달러)	-10.4	-0.19	42.1	76.6	114.5	46.0
수출(억달러)	263.3	264.4	339.1	462.4	596.5	614.1
(증가율, %)	(13.5)	(0.4)	(28.3)	(36.4)	(29.0)	(3.0)
수입(억달러)	273.7	264.6	297.1	385.8	482.0	568.1
(증가율, %)	(9.6)	(-3.3)	(12.3)	(29.9)	(24.9)	(17.9)
무역외수지(억달러)	-8.8	-14.5	-6.3	9.8	12.7	2.1
장기자본수지(억달러)	20.7	11.0	-19.8	-58.4	-27.3	-33.6
종합수지(억달러)	9.6	-12.5	17.0	52.0	121.8	24.5

### 2. 國際收支 및 換率

#### 1) 經常收支의 黑字反轉

##### — 貿易收支의 黑字反轉

- 구3저 시기에는 世界經濟 好況과 엔貨 강세에 따른 우리 商品의 輸出競爭力 強化로 輸出이 크게 증가했음. 輸出의 輸入誘發效果 등으로 輸入 또한 증가했으나 國際油價 하락으로 인한 原油輸入 급감으로 輸入增加率은 輸出增加率을 훨씬 하회함. 이에 따라 貿易收支가 86년 黑字로 반전되었고 黑字폭은 8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됨.
- 엔貨의 강세로 輸出市場에서 우리 商品의 對日 價格競爭力이 크게 강화됨. 86~88년중 우리 商品의 輸出單價는 日本商品의 輸出單價에 비해 상대적으로 10% 이상 하락했음. 또한 구3저 시기의 元貨切上 정도가 臺灣 元貨(NT달러)의 切上폭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對臺灣 輸出價格競爭力도 강화됨.

〈表 II-2〉

우리나라의 輸出單價 比較

(1985=100)

	韓國(A)	日本(B)	대만(C)	A/B	A/C
85	100.0	100.0	100.0	100.0	100.0
86	102.1	119.8	103.2	85.2	98.9
87	112.4	131.4	119.4	85.5	94.1
88	127.7	143.7	132.8	88.9	96.2
89	140.2	137.5	141.8	102.0	98.8

- 엔貨 강세는 價格競爭이 치열한 輕工業製品의 輸出擴大에 특히 기여했음. 선진국의 輸入規制強化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86~87년중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增加率을 앞서는 높은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工產品輸出에서 차지하는 輕工業製品의 比重은 오히려 증가했음.
- 原油導入單價의 하락으로 導入物量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原油導入額이 큰 폭으로 줄어듬. 이에 따라 우리나라 總輸入에서 原油輸入이 차지하는 比重 또한 급격히 떨어짐. 그러나 資本財의 경우 輸出 및 設備投資의 증대로 輸入物量이 늘어나고 機械類의 對日 輸入單價의 상승으로 輸入額이 크게 증가했음.
- 구3저 시기의 輸出好調에 따라 對美, 對EC 貿易收支 黑字는 큰 폭으로 확대됨. 그러나 엔貨 강세는 非彈力的인 對日依存的 輸入構造로 인해 對日 貿易

〈表 II-3〉

商品別 輸出增加率의 推移

(單位 : %)

	84	85	86	87	88	89
1차상품	7.4 (5.0)	-3.8 (4.6)	34.6 (5.4)	49.0 (6.0)	20.0 (5.6)	1.5 (5.5)
공산품	21.5 (95.0)	3.9 (95.4)	13.7 (94.6)	35.5 (96.0)	28.9 (94.4)	2.9 (94.5)
경공업제품	16.8 (40.3)	0.6 (39.0)	28.8 (44.2)	38.0 (45.0)	18.8 (41.5)	3.1 (41.5)
중화학제품	25.0 (59.7)	602 (61.0)	4.0 (55.8)	33.5 (55.0)	37.2 (58.5)	2.7 (58.5)

註 : ( )안은 수출구성비율.

〈表 II-4〉

原油 및 資本財 輸入推移

(단위 : 億달러, %)

원 유	57.8(18.8)	55.7(17.9)	33.5(10.6)	37.0(9.0)	36.9(7.1)	49.3(8.0)
자본재	101.0(33.0)	110.8(35.6)	113.3(35.9)	141.9(34.6)	190.1(36.7)	223.7(36.4)

註 : ( )안은 수입구성비율.

收支逆調를 오히려 심화시켰으며, 對日 貿易收支赤字도 85년 30억달러에서 86년 54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음.

一 貿易外收支의 改善

- 貿易外收支도 86년에 대폭 개선되었고 87년에는 黑字로 반전됨.
- 엔貨 강세로 엔貨표시 外債의 利子支給은 늘어났지만 外債規模의 대폭적 축소와 國際金利引下로 總外債利子支給額이 감소함.
-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으로 觀光入國者가 늘어난 데다가 엔貨강세의 영향으로 일본 등 強勢通貨國으로부터의 入國者 一人當 달러 支出額이 증가한 데 힘입어 旅行收支도 개선됨.
- 그러나 油價下落으로 인한 中東景氣의 악화로 海外建設 收入은 감소했음.

—한편 80년대 들어 매년 5~6억달러 수준의 黑字를 지속해오던 移轉收支도 海外居住僑胞들의 國內送金 증가로 黑字規模가 86년에 10.4억달러로 확대됨

## 2) 資本의 海外流出 增大와 對外資産의 增加

—輸出의 급신장과 景氣好況에 따른 設備投資需要 증대 등으로 86~88년의 구3저 시기의 國內總投資率은 평균 29.7%의 높은 수준을 보임. 그러나 經常收支 黑字와 政府部門의 貯蓄增加로 이 기간중 國內總貯蓄率은 평균 35.7%에 이룸.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投資財源의 自立을 달성하게 됨.

—借款導入의 減少와 外債規模의 縮小

-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됨에 따라 負債性 外國資本의 도입이 억제되어 借款의 新規導入이 86년 이후 대폭 줄어듦.
- 經常收支의 黑字分이 借入條件이 불리한 惡性外債를 중심으로한 外債의 早期償還에 적극 활용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總外債規模는 대폭 축소되어 總外債의 GNP에 대한 비율은 85년 55.9%에서 89년 14%까지 떨어짐.

〈表 II-5〉 우리나라의 外債 推移

(單位 : 億달러)

	84	85	86	87	88	89
總外債(A)	431	468	445	356	312	294
(순 증)	27	37	-23	-89	-44	-18
對外資産(B)	101	112	120	132	239	264
外換保有額	76	77	80	92	124	152
中長期延拂輸出	11	21	25	20	18	19
기 타	14	14	15	20	97	93
純外債(A-B)	329	356	325	224	73	29
(순 증)	21	27	-30	-101	-151	-44
總外債/GNP(%)	52.3	55.9	46.7	30.0	18.4	14.0

一 日本의 對韓直接投資의 增大

- 日本의 黑字規模 확대로 8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인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는 恩高의 영향으로 86년 이후 대폭 확대됨.
- 日本의 對韓直接投資는 恩高의 영향외에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 開放 확대, 올림픽特需 등으로 宿泊業, 電氣·電子, 機械, 化工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86년중 日本의 對韓直接投資額은 전년대비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임.

一 海外直接投資의 增大

- 經常收支 黑字에 따른 外換需給사정의 개선, 元貨切上 및 賃金引上에 따른 原價상승압력,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企業의 海外進出이 미국과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
- 海外直接投資의 증가에 따라 海外現地法人을 통한 輸出物量 또한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輸出總額에서 海外現地法人이 차지하는 輸出比重이 20%를 초과하게 됨.

〈表 II-6〉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單位 : 件, 백만달러)

	84	85	86	87	88	89
총외국인투자금액	193 (91)	235 (69)	477 (267)	626 (375)	894 (44)	812 (399)
총해외투자금액	58	31	157	333	153	325

註 : ( )안은 日本의 對韓直接投資금액

3) 元貨의 지속적인 切上

一 구3저 시기중의 經常收支 黑字폭은 資本의 海外流出 증대에 따른 資本收支上의 赤字폭을 훨씬 초과함. 이에 따라 國際收支는 86년 黑字로 반전되었고 그 黑字폭은 88년까지 계속 증가함.

—國際收支黑字은 원貨의 切上壓力으로 작용하였고, 黑字폭의 확대에 따라 切上壓力은 더욱 가중됨. 이에 따라 88년 원貨의 切上率은 15.8%에 이룸.

○특히 對美貿易收支 黑字폭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對韓通商壓力의 일환으로 원貨切上 요구를 강화함.

〈表 II-7〉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의 推移

	85	86	87	88	89
원/US \$	890.2	861.4	792.3	684.1	679.6
切上率(%)	-	3.3	8.7	15.8	0.7

### 3. 對韓通商壓力의 強化

#### 1) 원貨切上 壓力의 加重

—85년 9월 달러貨 약세 유도를 위한 G-5의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貨는 여타 先進國通貨에 대해 대폭 切下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貿易收支 赤字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자, 미국은 달러貨의 切下효과가 自國通貨가 달러貨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韓國·臺灣 등의 국가에 漏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 국가 通貨의 切上 압력을 가중시킴.

○國際收支黑字 확대로 8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切上된 원貨가치는 미국 등의 압력으로 88년 이후 그 切上速度가 가속화됨(우리나라는 美 財務部로부터 88, 89년 換率操作國으로 지적됨).

#### 2) 對韓輸入開放 壓力의 強化

—우리나라의 對美 貿易收支 黑字擴大로 미국내에서 제2의 일본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됨. 이에 따라 미국의 對韓 輸入開放 및 關稅引下幅 확대 요구가 가중됨.

○ 특히 87년 하반기 이후 美國은 比較優位가 있는 農産物 및 서비스市場에 대한 開放要求를 크게 강화함. 즉 農産物분야에 있어서는 쇠고기, 냉동감자 등 66개 品目の 市場開放 또는 關稅引下를 요구했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항공, 해운, 통신 및 광고 등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營業活動과 合作投資 참여를 요구함.

- 한편 우리 政府도 黑字管理의 일환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輸入開放정도가 86년 이후 크게 증가함.

○ 서비스市場의 경우 미국과의 通商摩擦의 결과 상대방의 開放이 이루어짐. 해운업, 광고대행사의 合作投資와 영화업의 國內進出이 허용되고, 外國人投資 進出 業體에 대한 營業制限이 상당히 완화됨.

### 3) 對韓 GSP供與의 縮小 및 停止

- 87년 1월 美 行政府 經濟政策審議會(EPC)는 미국의 貿易收支赤字 縮小方案의 일환으로 GSP 最大 受惠國인 韓國·臺灣·홍콩·싱가폴 4개국에 대한 GSP 供與停止를 大統領에 건의함. 이에 따라 89년 1월 1일부로 미국의 對韓 GSP 供與가 중단됨.

- EC와의 交易規模 확대와 黑字規模의 급증에 따라 EC와의 通商摩擦 또한 증가함. EC는 89년 GSP運用에서 韓國産 술 및 일부 纖維類 등 18개 品目を 제외시키고 피아노·타이어 등은 受惠限度를 50% 삭감함.

## 4. 景氣 및 物價

### 1) 國內景氣의 好況

—輸出好調에 힘입어 우리 經濟는 86년 이후 3년 연속 12% 이상의 高成長을 이루었으며, 85년 2,04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88년 4,127달러로 2배이상 증가함. 雇傭사정 또한 크게 개선되어 85년 4%에 이르렀던 失業率은 88년 史上 最低 수준인 2.5%로까지 떨어짐.

—輸出好調와 所得增加에 따라 投資 및 消費支出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消費支出의 경우 可處分所得의 증가로 승용차, 세탁기, 컬러TV 등 耐久財 消費가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보인 반면, 非耐久財의 경우 비중이 큰 식료품비의 支出이 둔화되어 낮은 신장율을 나타냄.

○投資需要의 경우 기업의 投資의욕 고취로 設備投資를 중심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임. 建設投資 역시 86년에는 住居用 建物 建設이, 그리고 87년에는 商業 및 工業用 등 非居住用 建物 建設이 각각 23.8%, 2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 國內物價 上昇

—3저에 따른 國內景氣의 好況에도 불구하고 86년과 87년중 國內物價는 80년대의 安定基調가 지속됨.

○國際原油價의 하락으로 原油導入價格과 石油關聯製品價格이 큰 폭으로 떨어짐으로써 物價安定에 기여함.

○또한 國際金利 하락에 따른 金融費用負擔의 경감, 그리고 달러貨에 대한 원貨가치의 上昇으로 인한 外換借損의 감소가 國內企業의 原價節減에 기여함.

○원貨의 切上으로 원貨표시 輸入財價格이 떨어짐.

—그러나 88년 이후 國內物價는 큰 폭으로 상승했음.

- 經常收支 黑字規模의 확대로 인해 海外部門에서의 通貨增發壓力이 가중됨.
- 급격한 景氣活況에 따른 源資財 및 部品の 調達難, 그리고 그동안의 設備投資 부진으로 인한 供給能力의 한계로 需要와 供給間의 괴리현상이 나타남.
- 엔貨 강세로 鐵鋼材 및 機械類 등의 對日輸入資本財의 가격이 상승함.

〈表 II-8〉

總通貨 推移

(單位 : 십억원)

	1985	1986	1987	1988	1989
총통화(M2)	3,859.6 (11.8)	5,267.9 (16.8)	6,446.4 (18.8)	8,659.3 (18.8)	9,699.2 (18.4)
정부신용	40.4	24.0	-1,624.6	-2,186.0	-1,999.0
민간신용	6,461.7	6,112.6	9,001.7	8,341.0	16,988.8
해외부문	-1,505.6	1,568.4	4,522.7	8,856.4	1,852.6
기타부문	-1,136.8	-2,437.2	-5,453.3	-6,352.1	-7,143.3

註 : ( ) 내는 期中平均殘額의 前年同期對比 증가율.

—그러나 구3저 초기의 物價安定勢가 지속되지 못한 중요한 要因중의 하나는 8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賃金引上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86-87년중의 賃金上昇率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은 賃金上昇率이 3저현상이 파급되기 전에 타결되었고, 85년 景氣沈滯와 雇用事情의 악화가 86년 賃金調整에 영향을 미쳤으며, 3저현상이 輸出關聯産業에 편중되어 그 영향력이 아직 産業全般에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3저 好況에 따른 雇用事情의 개선은 사회전반의 民主化분위기와 더불어 8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勞動者의 賃金引上要求 확대의 배경이 됨.

3) 國內景氣의 버블化

—國內 流動性供給 확대에 따른 풍부한 資金事情, 그리고 物價不安에 따른 인플

레 期待心理의 확대로 不動産價格, 株式價格이 급등함.

- 이에 따라 3저 好況期의 기업의 餘裕資金이 設備投資·研究開發 등 企業內 實化 목적보다는 不動産·株式投資 등에 유입되는 副作用을 초래함.
- 또한 資産價格 급등에 따른 富의 증대로 89년 景氣가 둔화된 이후에도 奢侈性 消費財를 중심으로한 消費支出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過消費 풍조가 초래됨.

〈表 II-9〉 賃金, 株價, 地價 및 物價 上昇推移

(單位 : %)

	1985	1986	1987	1988	1989
賃金상승률(名目)	9.2	8.2	10.1	15.5	21.1
株價상승률	5.3	64.0	83.3	66.0	32.5
地價상승률	7.0	7.3	14.7	27.5	32.0
物價상승률(消費者)	2.5	2.8	3.0	7.1	5.7

### Ⅲ.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 구3저 시기(86~88년)중 우리經濟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과거 赤字 基調에 있던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되어 그 규모가 가속적으로 증가한 점임.
- 經常收支의 黑字轉換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經濟政策의 운용에 있어 과거 겪지 못하였던 問題點을 제기함.
  - 元貨의 換率이 低評價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 切上壓力이 가중됨(美 財務部는 한국을 “換率操作國”으로 비난).
  - 主要先進國 특히 미국과의 通商摩擦이 심화됨.
  - 해외부문에서의 通貨增發이 인플레이압력으로 작용함과 아울러 通貨管理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구3저 시기의 經濟政策은 通商摩擦 및 元貨切上 壓力的 완화, 해외부문의 通貨增發의 中和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음.

#### 1. 換率政策

- 80년 1월 과거의 달러 페그制度에서 複數通貨 바스켓 페그制度로 換率制度가 바뀐 한국의 元貨는 85년 9월까지의 줄곧 切下되어 왔음.
  - 交易相對國들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만성적인 赤字에 시달려 온 國際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우리의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되기 시작한 85년 9월 이후 元貨의 달러貨에 대한 切上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초기의 원貨切上의 속도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臺灣에 비해 훨씬 느렸으며 그 幅도 작았음.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切上率은 86년에 3.3%, 87년에는 8.7%에 그쳐 같은 기간중 臺灣의 切上率인 10.1%와 22.9%에 크게 못미쳤음.

—그러나 86년 46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87년 99억달러, 88년 142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팽창한 經常收支 黑字로 대외적인 마찰이 야기되자 원貨의 切上速度는 급속하게 빨라졌음.

○88년 한해동안의 원貨 切上幅은 15.8%에 달함으로써 일본(3.2% 切下)이나 대만(1.1% 切上)의 切上幅을 크게 상회하였음.

—이같은 원貨의 움직임은 實質實效換率에도 나타나는데 Morgan銀行의 實質實效換率指數(1980~82=100)를 보면 85년 이후 87년까지는 同指數가 하락하다가 88년 부터는 상승추세로 돌아섬.

〈表 III-1〉 원貨의 實質實效換率指數 推移

年 度	1985	1986	1987	1988	1989
指 數	89.3	76.3	75.6	82.3	92.3

## 2. 通貨金融政策

### 1) 輸出關聯 金融支援의 縮小

—해외부문을 통한 通貨增發規模가 급증하는 가운데 輸出好調로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好轉된 점을 감안하여 貿易金融 등 수출관련 政策金融支援을 대폭 축소하였음. 먼저 貿易金融을 보면

- 87년에는 貿易金融規程을 6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系列企業 및 大企業을 중심으로 貿易金融의 달러당 용자금액을 큰 폭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용자한도도 감축하였음.
- 더우기 88년에는 系列企業群 所屬企業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貿易金融을 중단하였으며 달러당 融資單價를 더욱 인하하였음.

-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 素材, 部品産業 취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同 자금용자대상에서 모든 系列企業群 所屬企業體 및 非系列 大企業을 제외하였으며, 종전에는 金融機關이 소요자금의 100%까지 용자할 수 있었던 同資金의 용자비율을 인하하였음.

## 2) 外貨貸出制度的 縮小

- 外貨貸出 용자대상을 축소하고 용자비율을 인하하는 등 外貨貸出制度를 축소·정비하였음.
- 電源開發用 機資材 輸入資金과 特許權使用料 지급자금 등 무역외지급자금을 외화대출 용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일부 자금의 용자비율도 인하조정하여 예컨대 計劃造船用 機資材 輸入資金은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에서 80%이내로 낮추었음.

## 3) 巨額借入業體의 銀行借入金 償還促進

- 자금사정이 비교적 좋고 직접금융시장 이용이 가능한 대기업의 기존 은행대출금 회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 보다 긴요한 부문에 대한 與信供給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銀行貸出금이 일정액 이상인 巨額借入業體에 대해 연간 借入金 규모의 10% 해당액을 有償增資, 企業公開 또는 轉換社債 발행 등을 통하여 조

달하여 기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음.

#### 4) 政策金融性格의 再割引制度 縮小 整備

— 해외부문을 통한 巨額의 通貨增發持續 등 通貨管理與件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 금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의 再割引 및 貸出制度를 대폭 개편하여 政策金融性格의 再割引 및 貸出金利를 인상하고 자금지원비율을 인하조정함.

#### 5) 金融機關 預金 支給準備率 引上

—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통화관리여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與信供給能力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예금에 대한 支給準備率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4.5%에서 7%로(87년), 이를 다시 10%(88년)로 인상하였음.

#### 6) 通貨安定證券의 發行 擴大

— 해외부문의 通貨增發幅의 확대에 대응한 통화관리수단으로서 公開市場操作의 활용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公開市場操作의 거래대상기관을 확충하였음.

— 公開市場操作의 주된 수단은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었는데, 그 발행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86년에 2조 7,545억원, 87년 4조 9,159억원, 88년에는 7조 1,990억 원에 달하였음.

### 3. 市場開放政策

一 經常收支 黑字規模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통화팽창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對外通商壓力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輸入自由化의 확대, 關稅率의 인하 등 市場開放措置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1) 輸入自由化 擴大

一 輸入自由化는 80년대 들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구3저 시기중에는 輸入自由化 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

○ 87년 7월에는 그동안 産業競爭力이 취약한 품목으로 지적되어 왔던 167개 품목(CCCN 8단위 기준)을 自由化함.

○ 88년에는 機械額 179개 품목을 중심으로 총 333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의 수입을 추가로 自由化함으로써 88년말 현재의 輸入自由化率은 94.8%로 높

〈表 Ⅲ-2〉 輸入自由化 推移

	1985	1986	1987	1988
總品目數	7,915	7,911	7,911	10,205
自由化品目數	6,945 (87.7)	7,241 (81.5)	7,408 (93.6)	9,671 (94.8)
1次産業 및 食品	1,084 (78.2)	1,102 (79.7)	1,104 (79.9)	1,470 (75.3)
農水產品	525 (66.2)	543 (68.4)	548 (72.6)	1,284 (71.9)
工產品	5,861 (89.8)	6,139 (94.0)	6,304 (96.6)	8,201 (99.4)

註 : 1) ( )안은 輸入自由化率로서 총품목수중 輸入自動承認品目數의 비율

2) 85-87년은 CCCN 8단위 기준, 88년은 HS 10단위 기준

아졌으며 특히 工産品の 自由化率은 99.4%에 달하게 됨.

—한편 輸入自由化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일부 輸入自由化品目에 대한 規制를 해제하기로 함.

○ 輸入自由化에 따른 國內産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輸入自由化 실시후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품목에 대하여 輸入監視品目으로 지정하거나 緊急關稅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여 음.

○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가 通商摩擦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음에 따라 이 제도를 해제하였음. 즉 86년말 현재 106개이던 輸入監視品目を 87년말에는 48개 품목으로, 88년 4월에 25개 품목으로 축소한데 이어, 88년말을 기하여 輸入監視制度 자체를 폐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緊急關稅 부과도 해제하였음.

## 2) 特別法에 의한 輸入規制 緩和

—과거 일부 輸入品目에 대해서 工産品 品質管理法, 工業標準化法 등 39개 特別法에 의하여 따로 그 輸入節次 및 要件을 정하여 수입품목의 規格 및 品質을 관리하여 왔으나 구3저 시기중에 이와같은 特別法에 의한 輸入節次 및 要件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輸入自由化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 3) 關稅率 引下

—구3저 시기중에는 通商摩擦緩和 및 主要物資의 供給안정 등을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關稅率을 인하함으로써 關稅障壁을 크게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平均 關稅率은 85년의 21.3%에서 89년에는 12.7%로 크게 낮아지게 되었음.

〈表 Ⅲ-3〉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 推移

(단위 : %)

	1985	1986	1987	1988	1989
全 體	21.3	19.9	19.3	18.1	12.7
工 產 品	20.3	18.7	18.2	16.9	11.2
農 產 品	28.8	27.1	26.4	25.2	20.6

4) 서비스市場의 開放擴大

— 상품시장의 대폭적인 開放擴大와 더불어 보험, 광고, 무역업 등 서비스市場의 개방도 적극 추진되었음.

- 保險市場을 보면 87년중 2개의 外國生命保險會社에 대하여 國內支店設置를 허용한데 이어 88년중 1個社의 支店設置를 추가 허용하였으며, 88년 3월부터는 外國生命保險會社가 국내 15大 재벌기업을 제외한 기업과의 合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廣告업의 경우는 87년중 綜合廣告代行業을 外國인투자 금지업종에서 制限業種으로 완화한데 이어 88년 1월부터는 外國人投資比率이 50%미만일 경우 綜合廣告代行業과의 合作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一般 貿易業에 대한 外國人投資制限도 완화하여 外國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던 輸入業 개설을 88년 1월부터는 50%이상인 경우에도 허용하였음.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1) 外貨資金 流入規制 強化

— 一 元貨切上의 加 速화와 內 外金利差의 지속으로 유발되는 短期投機性 外貨資金의 國內流入에 따른 海 外部門 通貨增發壓力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 각적인 시책이

실시됨.

- 居住者 및 非居住者가 휴대수입하는 외환의 등록 및 국세청 通報對象을 종전의 3만달러에서 3천달러 이상으로 확대함.
- 非居住者 外貨預金의 元貨換錢 인출을 금지함.
- 非居住者의 외화매각한도를 1만달러 이하로 축소함.
- 國內流入 外貨資金에 대한 稅務行政上의 사후관리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함.

## 2) 外貨資金 流出促進

— 經常收支 黑字財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자본유출확대를 통한 通貨增發壓力의 완화를 위해 海外投資促進과 外債早期償還 誘導施策을 강화함.

—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기 위해 海外投資對象 및 金額限度를 확대하고 海外投資節次를 간소화함.

- 종전에는 個人企業을 운영하기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대상을 중고시설 및 장비를 국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나 이를 1백만 달러 이하의 모든 個人企業을 운영하는 경우로 확대함.
- 해외투자 허가시 主務部長官의 의견조회대상은 미수교국 투자, 현지공관장의 사전의견 조회대상은 부동산 및 농업투자에만 국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 이익금의 국내 회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별도 허가없이 利益金을 현지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韓國銀行總裁가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본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였던 海外投資者에 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國內 資本金 規模에 관계없이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됨.

—機關投資家의 해외증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投資信託會社 및 保險會社에 대하여는 1천만달러까지, 그리고 證券會社의 투자한도는 3천만달러로 확대함.

—또한 外資의 신규도입을 억제하는 한편 조건이 불리한 외채의 早期償還을 적극 추진함.

### 3) 貿易外支給에 대한 規制 緩和

—經常收支 黑字幅의 확대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기 위해 해외여행경비를 비롯한 經常貿易外 支給에 대한 각종 제한을 크게 완화함.

○ 해외여행 基本經費限度를 종전 1천달러에서 5천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外國 換銀行의 여권확인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一般使用者와 特例使用者의 區分 및 經費使用限度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金額制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외여행경비 이외의 貿易外支給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어

○ 支社勤務者 등의 月當 滞在費 限度를 종전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유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월체재비 限度를 종전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각각 인상함.

○ 少額 對外送金을 自由化하여 종전에 인정된 거래범위내에서만 가능하던 個人 送金을 건당 2천 달러이하의 소액송금은 신원확인만으로, 그리고 건당 1만 달러이하의 貿易外支給은 지급사유 확인만으로 가능토록 함.

○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海外支社 등에 대한 경비지급제한도 완화하여 종전 지점당 1백만 달러이내로 제한하던 海外支店의 營業基金限度를 폐지하고, 해외지점이 外國換 銀行의 인증없이 현지에 유보할 수 있는 營業 利益金 限度도 종전 연간 1만 달러이내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함.

## 5. 評價

—구3저 시기에 취해졌던 商品輸入自由化와 關稅率 引下 및 保險 등 서비스市場의 開放 措置들은 비록 수동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그 당시에 집중되었던 통상마찰을 완화함과 아울러 우리經濟의 國際化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評價됨.

—그러나 換率 및 通貨政策이나 企業次元의 對應方案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視覺을 바탕으로 취해진 措置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1) 換率政策

—구3저 시기의 元貨의 換率運用을 살펴보면 換率政策이 韓·美 通商摩擦의 일환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짐. 즉 元貨의 切上은 미국측의 압력때문에 어쩔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元貨切上은 미국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연시키고 切上幅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換率政策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이와같은 換率政策은 巨視經濟의 불안정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初期의 換率切上幅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86년부터 88년까지는 높은 輸出增加率(年平均 26.08%)에 바탕을 둔 12~13%의 高度成長과 經常收支黑字의 累積을 누렸음.

○ 그러나 88년에 元貨가 競爭國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切上됨에 따라 89년에는 우리經濟의 輸出增加率(2.8%)과 成長率(6.8%)이 크게 둔화되고 經常收支 黑字規模도 크게 축소됨. 더우기 90년 이후 經常收支는 赤字로 전환됨.

이에 비추어 볼 때 구3저 시기의 換率運用은 換率調整을 통상마찰완화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外換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市場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가격변수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86년과 87년에 일본과 대만의 換率變動에 발맞추어 어느 정도의 切上을 실시하고 88년에는 그 반대로 切上의 폭을 누그러뜨리는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換率運用은 86~88년의 輸出增加率을 다소 낮춤과 동시에 89년 이후의 輸出鈍化의 幅도 축소시킴으로써 우리經濟가 경험한 巨視經濟의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임.

즉 구3저 시기의 換率運用에서 認知되는 가장 큰 問題點은 우리의 換率政策이 비교적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換率調整의 時期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지연됨에 따라 輸出, 國際收支 및 成長率의 변동폭을 확대시킨데 있는 것으로 보임.

## 2) 通貨金融 政策

해외부문에서의 通貨增發壓力을 資本收支 및 貿易外收支의 調整을 통하여 즉 해외부문 자체내에서 완화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貿易收支의 대폭적인 黑字를 상쇄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

이에 따라 해외부문의 通貨增發을 中和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주로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 이용됨.

그러나 通貨安定證券의 과대 發行은 그 이자부담으로 또다른 通貨增發壓力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內需部門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3) 財政政策

—구3저 시기에는 財政政策의 기본방향은 安定속의 福祉增進을 기초로 하였는  
 바, 經常收支 黑字累積과 國民所得의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期待欲求가 具體  
 化됨으로써 經濟構造를 高度化하고, 階層間·地域間의 不均衡을 是正하는 데  
 주력하였음.

○ 그러나 經常收支黑字에 따른 財源을 바탕으로 道路, 港灣, 鐵道, 空港, 通信 등  
 의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3저 시기  
 의 財政運營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물류비용의 상승  
 과 그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弱화를 야기시킴.

### 4) 企業의 對應

—89년 이후의 수출, 성장, 국제수지 등 경제실적이 86~88년에 비해 크게 부진  
 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原料切上, 賃金上昇 등 價格競爭力의 약화에도 일  
 부 기인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技術 및 新製品開發이 지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즉 우리기업은 3저라는 대외여건에 따른 價格競爭力 향상을 바탕으로 주로 경  
 공업제품의 수출급증에 힘입은 好況을 누리면서 거기에 安住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홀히 함. 이에 더하여 중국 및 ASEAN 등 後  
 發開途國의 추격으로 세계시장에서 價格競爭力마저 약화됨으로써, 세계경제  
 의 여건이 다소 악화되자 우리經濟의 부진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됨

—구3저의 후반기에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89년 이후에 經濟成長이 둔화  
 된 要因의 하나로 勞使紛糾 및 賃金上昇이 지적됨. 이와 같은 勞動市場의 不  
 安은 당시의 政治·社會的 분위기에도 기인한 바 있으나 종전의 企業들이 成

長果實의 分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근로자의 복지수준향상에 소홀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음.



## IV. 新3低의 效果

###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신3저는 구3저에 비해 對外經濟與件의 變化面에서 충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더우기 구3저와 마찬가지로 신3저가 國內景氣의 沈滯期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景氣回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3저현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엔貨의 절상폭이 구3저 시기에 비하여 신3저 시기에 작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엔貨의 實質實效換率의 절상폭이 신3저 시기에 크게 나타나고 있고, 92년 이후 원貨의 實質實效換率도 10% 가량 절하되어, 환율면에서 신3저는 구3저 못지 않은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國際金利面에서 미국의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의 절대적 수준도 구3저 시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油價의 變化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연간 90억달러 이상을 原油輸入代金으로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國際油價의 安定勢가 현재의 수준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리한 국제경제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구3저에 비해 신3저는 엔貨 換率, 國際金利, 油價가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變化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따라서 구3저가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비해 신3저의 효과는 變化폭이 가져다 주는 효과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경제여건에 있어서 신3저는 구3저와 달리 世界經濟의 沈滯를 바탕

으로 하고 있음. 94년 미국을 중심으로 先進國의 景氣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여타 先進國에서는 회복세가 저조한 것으로 보아, 신3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구3저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89년 이후 우리 경제의 高費用-低效率 構造가 심화됨에 따라 신3저의 효과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

- 민주화 과정에서 소득보상욕구가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勞動生産性을 앞지르는 賃金上昇이 빠르게 진행되었음. 한편 중국, ASEAN 등 개도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말미암아 경공업 부문에서 우리의 輸出市場은 크게 잠식되기에 이르렀음. 구3저 시기에 대만과 우리나라가 누렸던 경공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신3저 시기에는 중국, 아세안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엔高의 효과로 일본과 경쟁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設備投資의 부족으로 공급애로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낮은 國際金利에도 불구하고 國際金融市場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국내기업들은 국내 高金利로 인하여 과다한 資金調達費用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며, 이는 實物부문의 성장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 부동산 景氣가 沈滯 내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공단설립에 따른 土地費用이 경쟁력 약화의 또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음.

-신3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3저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景氣, 物價,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그 효과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景氣 : 구3저 시기에 연평균 經濟成長率 12% 이상의 高成長을 달성할 수 있으나, 신3저 시기는 93년 5.6%, 94년 6~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産業構造의 調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구3저 시기에 경공업제품의 수출급증에 힘입은 好況을 누리면서 産業構造의 調整이 지연된 것을 신3저 이후에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物價 : 구3저 시기중인 86~87년의 國內物價는 국제유가 및 국제금리의 직접적인 효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해외부문의 通貨增發 압력이 外債조기 상환 등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음. 그러나 그후 高成長의 후유증으로 비롯된 國內景氣의 버블화가 초래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高費用-低效率 構造를 파생시키게 되었음. 신3저 시기에 국제유가 및 국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직접적인 物價安定 효과에도 불구하고, 93년 消費者物價上昇率이 5.8%를 기록함으로써 구3저에 비해 물가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신3저 시기의 通貨增發 압력은 經常收支 黑字보다는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經常收支 : 구3저 시기에 經常收支는 88년 141.6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신3저 시기에 經常收支는 대체로 均衡 또는 소폭적인 赤字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신3저 시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資本自由化를 감안할 때 오히려 經常收支의 소폭의 적자가 해외자본유입으로 인한 國內 通貨增發 압력을 완화하고 國內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 國際收支와 換率

### 1) 經常收支

- 93년의 經常收支는 89년(50.5억달러 黑字)이래 4년만에 黑字로 반전되었음
- 貿易收支가 꾸준한 輸出의 伸張과 輸入鈍化에 힘입어 20.8억달러 黑字를 보였고, 貿易外收支도 赤字를 지속하기는 하였으나 貨物운입과 해외건설용역 收入의 증가 등에 힘입어 그 적자폭이 92년 26.1억달러에서 23.4억달러로 축소되었음.
- 이와 같은 經常收支의 黑字基調가 94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함.

- 구3저 시기에 비하여 최근의 세계경제여건은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3저가 經常收支의 黑字基調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表 IV-1〉

## 經常收支의 推移

(單位 : 億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經常收支	51	-22	-87	-45	5
貿易收支	46	-20	-70	-22	21
貿易外收支	2	-5	-16	-26	-23
移轉收支	2	3	-2	2	7

## 一 貿易收支의 最近 動向과 展望

- 93년 20.8억달러의 貿易收支 흑자요인을 살펴보면, 輸出이 810억달러로 92년 대비 7.8% 증가한데 반하여 輸入이 789억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임.
- 최근의 貿易收支 動向을 살펴보면, 94년 1/4분기중 수입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25.8억달러의 貿易收支赤字(通關基準)를 기록하였음. 이는 輸出이 전년 동기대비 9.8%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輸入이 12.9%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엔高의 效果로 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견조한 輸出增加勢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93년 하반기이후 국내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의 稼動率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와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각종 부품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94년 전반적인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一 엔高의 效果

- 엔貨가치는 93년 1월 1달러당 125엔에서 93년 8월 17일에는 101.15엔까지 상

승하기도 하였으며, 94년 3월말 현재 102.6엔을 기록하고 있음. 輸出競爭力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貨가치는 동 기간에 다소 절하되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엔貨강세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貿易收支를 다소 악화시키나, 2분기 이후 점차 貿易收支를 개선하는 J-Curve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92년말 수출입 기준으로 달러貨에 대한 엔貨가치가 10% 절상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貿易收支를 5.3억달러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1)</sup>

#### 一 國際的 低金利의 效果

- 국제적인 低金利은 기업의 해외로부터의 외부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輸出單價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음. 輸出支援金融制度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한 국내 高金利構造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은 오히려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구3저 시기에 국제 저금리의 효과로 外債利子支給額이 감소하여 貿易外收支가 黑字를 실현할 수 있었음. 89년 이후 우리나라 外債規模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93년말 현재 440억달러(純外債 79.8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금리가 지속적으로 4~5% 수준을 유지할 경우 對外債務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은 한층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달러금리의 인상으로 인하여 신3저가 금리부문에 다소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금리가 貿易外收支 개선에 미치는 효과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임.

1) 金宗萬,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政策研究 93-1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2) 資本收支

## - 資本收支의 最近 動向과 展望

- 93년 長期資本收支는 外國人株式投資의 증가, 기업 및 개발기관의 海外證券 발행증가 등으로 92년에 비하여 흑자규모가 21.7% 증가하여 88억달러의 도입초과를 기록하였음. 한편, 88년 이후 지속적인 도입초과를 보여왔던 短期資本收支는 短期貿易信用의 결제가 늘어나 93년중 20.5억 달러의 지급초과로 전환하였음.
- 최근 미국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국제금리가 다소 상향조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금리와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94년중 外國人株式投資의 활성화,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 및 社會間接資本관련 商業借款의 허용 등으로 순도입규모가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더우기 신3저 기조하에서 資本自由化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장기자본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될 것임. 따라서 구3저 시기에 국제 저금리하에서 外債조기상환이 실현되면서 나타났던 자본수지의 지급초과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신3저하에서는 장기자본의 도입초과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表 IV-2〉

資本收支의 推移

(單位 : 億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長期資本收支	-34	5	42	72	88
短期資本收支	1	33	0	11	-21

## - 엔高와 日本의 對韓直接投資

- 구3저 시기에 日本企業은 동남아지역으로부터의 迂廻生産을 통해 일본제품의 市場占有率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輕工業部門의 수출증가효과

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음. 신3저 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경쟁 산업은 重化學工業 부문으로 전환하였고, 일본기업의 迂廻生産이 重化學工業 부문에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3저 시기에 나타났던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表 IV-3〉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 現況 (단위 : 백만달러)

區分 \ 年度		90	91	92	93	누계 62~93
總 投 資		803	1,396	894	1,044	11,209
產 業 別	製 造 業	583 (72.6)	1,069 (76.6)	648 (72.5)	527 (50.5)	7,394 (66.0)
	서 비 스 業	219 (27.3)	326 (23.4)	244 (27.3)	517 (49.5)	3,773 (33.7)
	農 漁 鑛 業	1 (0.1)	1 (-)	2 (0.2)	0.1 (-)	42 (0.3)
國 家 別	日 本	236 (29.4)	226 (16.2)	155 (17.3)	286 (27.4)	4,466 (39.8)
	美 國	317 (39.5)	296 (21.2)	379 (42.4)	341 (32.7)	3,270 (29.2)
	E U	207 (25.8)	824 (59.0)	281 (31.4)	296 (28.3)	2,207 (19.7)
	其 他	43 (5.3)	50 (3.6)	79 (8.9)	121 (11.6)	1,266 (11.3)

註 : ( ) 내는 구성비(%).

- 93년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는 인가·신고수리 기준으로 10.4억달러를 기록하여 92년에 비하여 16.8% 증가하였음.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액이 2.9억달러로 92년에 비하여 8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93년 국별로 가장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인 일본은 제조업부문보다 서비스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있음.
- 엔高로 인한 日本企業의 對韓直接投資에 있어서 고도기술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조업부문의 투자환경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3) 換率

-94년중 經常收支는 거의 균형이거나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3저 시기에는 經常收支 黒字로 인한 圓貨切上 압력이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달러貨에 대한 엔貨 환율이 94년 3월말 현재 달러당 102.6엔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93년 64.6억달러의 해외자본의 순수입에도 불구하고 달러貨에 대한 圓貨 환율은 92년말 788.4원에서 93년말 808.1원으로 절하되었음.

○ 구3저 시기에는 달러貨가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으나, 신3저의 경우 달러貨는 엔貨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貨에 대한 圓貨의 切上압력은 크지 않음. 그러나, 94년에는 해외자본 순수입의 증가가 어느 정도 圓貨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94년중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換率의 不安定을 가져오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3월 市場平均換率制가 도입된 이후 換率과 綜合收支가 상호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변동하였음. 특히 資本自由化의 진전과 더불어 資本收支의 變動이 換率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임.

## 3. 輸出入構造의 變化

### 1) 輸出

-93년 輸出은 경공업제품이 3.0%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제품은 13.2% 증가하여 총수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7.8%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음.

○ 전자부문의 수출증가가 5.4%의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에 자동차 54.4%, 기

계 14.6%, 철강 14.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에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90년 55.2%에서 93년 63.7%로 크게 증가하였음.

〈表 IV-4〉

## 輸出構造의 變化

(單位 : 억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總 輸 出	623.8	650.2	718.7	766.3	822.4
輕 工 業	247.8	251.5	253.0	248.3	240.8
	(39.7)	(38.7)	(35.2)	(32.4)	(29.8)
重化學工業	334.6	358.6	415.0	462.9	524.0
	(53.7)	(55.2)	(57.7)	(60.4)	(63.7)

註 : ( ) 내는 구성비(%)

—94년 1/4분기중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제품의 輸出 또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엔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輸出이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3저로 인한 비용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경공업부문의 수출증대효과는 구3저 시기보다 작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최근까지 先進國의 不況으로 수입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였으나, 94년에는 개도국시장이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先進國의 景氣回復으로 先進國市場에 대한 輸出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輸出을 지역별로 보면, 신3저 기조가 보이기 시작한 92~93년 기간동안 미국, 일본, EU 등 주요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수출은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와 중국 등 오히려 對開途國 輸出이 증가세를 보였음.

○ 94년 1/4분기중 對先進國 輸出이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對開途國 輸出은 6.2%

〈表 IV-5〉

## 主要 地域別 輸出構造

(單位 : 억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미 국	206.4	193.6	185.6	180.9	181.4
일 본	134.6	126.4	123.6	116.0	115.6
E C	73.9	88.4	97.3	92.5	94.2
동 남 아	88.9	104.0	138.8	172.2	188.4
중 동	18.2	20.0	26.2	35.6	37.6
기 타	101.7	117.7	147.2	169.2	205.2

증가하는데 그쳤음.

## 2) 輸入

-93년 輸入需要는 2.1%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93년 0.1%의 증가에 불과했던 資本財의 수입이 94년 1/4분기중 국내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93년 原油輸入은 91.5억달러로 輸入物量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輸入代金은 4.2% 감소하였음. 당분간 국제유가가 약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貿易收支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그러나, 原油를 제외한 원면, 원당, 제재목, 천연고무 등 國際 原資材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국내물가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입대금의 증대로 인하여 신3저의 貿易收支 개선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임.

〈表 IV-6〉

## 財貨 形態別 輸入構造(通關基準)

(單位 : 億달러)

	총수입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원	유	
1989	614.6	61.3	329.7	49.3	223.7
1990	698.4	67.4	376.5	63.9	254.5
1991	815.2	80.8	433.6	81.3	300.9
1992	817.8	85.7	426.2	95.5	305.8
1993	838.0	87.8	444.2	91.5	306.0

## 4. 景氣와 物價

## 1) 景氣

—구3저말부터 비롯된 不動産·株式 등 資産價格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거품 경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비롯된 92~93년 기간의 경기후퇴가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신3저 기조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93년 경제성장 전망이 당초 5%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실제 GNP 성장율이 5.6% 수준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은 엔高와 低油價, 低金利 등 대외적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뚜렷한 신장세를 보였기 때문임.

○先進國 景氣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엔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輸出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면서 설비투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重化學工業의 성장세에 비해 輕工業의 회복세가 부진한 것을 이유로 景氣의 兩極化 현상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으나, 가격경쟁력 회복이 産業構造調整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景氣回復이 지속적인 성장세의 유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3저가 成長潛在力 확충을 위한 호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2) 物價

-신3저의 효과로 인한 經常收支의 改善效果가 94년중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資本收支의 黑字로 인한 通貨增發壓力이 94년 하반기부터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구3저 시기에 海外部門의 通貨增發壓力은 수출호조에 따른 貿易收支의 黑字에 기인한 바가 컸음.

- 신3저 시기에 海外部門의 通貨增發壓力은 經常收支의 黑字보다는 資本自由化에 따른 海外資本의 流入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94년에는 輸出의 꾸준한 증가와 內需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은 경기회복세의 지속에 따라 需要牽引的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 93年 5.8%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을 보인 우리나라는 최근 농·수산물의 공급 불안정,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인상, 국제원자재가격의 인상 등 費用上昇的 要因에 의하여 물가불안도 나타났었음.

- 그러나 신3저 시기에는 經常收支의 黑字幅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國內 高費用構造의 改善과 海外資本流入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응이 마련될 경우, 국내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需要牽引的 物價上昇要因이 심각한 物價不安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신3저현상을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貨가치의 급격한 切上 억제, 物價의 안정 도모, 金利의 하향 안정세 유지, 지나친 석유소비 증가의 억제 등이 요구되고 있음.

- 換率 : 엔高를 우리제품의 國際競爭力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원貨의 급격한 절상은 피하는 한편, 엔高에 따른 對日 競爭力 향상 기회를 활용하여 部品の 對日依存을 탈피하고 日本市場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구3저 시기와 같이 원貨切上을 지나치게 억제하다가 원貨切上 압력에 따라 단기간에 원貨가 크게 절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金利 : 국제적인 低金利 추세에 맞추어 國內金利 인하를 유도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投資를 活性化하고 지나친 外國資本의 流入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低金利 海外資本을 활용하여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油價 : 低油價 추세가 지나친 석유소비의 급증을 가져오지 않도록 에너지節約的 産業構造로의 전환, 에너지效率性 향상을 위한 노력증대, 油類消費의 절약 등이 필요함.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石油消費增加率은 20%를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석유소비의 증가는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가격의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음.

또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신3저 기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對內外 政策의 설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구3저 시기와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3저 시기의 경험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 1. 換率政策

—구3저 시기에 원貨의 換率은 당시 우리經濟가 누린 經常收支의 대폭적인 黑字에 기인하여 切上壓力을 받았음.

—이에 비해 신3저 시기의 經常收支는 赤字 내지는 均衡狀態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貨의 切上壓力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93년중 89년 이후 4년만에 소폭적인 黑字를 기록한 經常收支는 94년중 거의 균형수준이거나 소폭적인 赤字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92년 外國人 株式投資의 허용이후 해외자본의 純流入은 새로운 換率切上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93년중 純資本流入은 57억 달러에 달했으며 94년 1/4분기에는 24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外國人 株式投資限도의 소진, 北韓核 문제 등으로 향후 海外資本의 流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資本市場의 開放에 따른 海外資本의 純流入이 계속된다고 볼 때, 市場平均換率制度의 도입 이후 완만한 切下趨勢를 보여온 원貨의 對달러 換率은 切上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

○ 이때 원貨切上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고 實質實效換率을 기준으로 安定勢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임.

—원貨가 切上으로 반전될 경우 그것이 우리의 輸出競爭力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원貨의 切上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그러나 지나친 원貨 切上 억제는 市場原理를 무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왜냐하면

○ 원貨切上을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저지할 경우, 구3저 시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換率操作의 시비를 야기시켜 언젠가는 더욱 큰폭의 충격적인 切上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 엔高에 따라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競爭力이 강화되고 있고 선진국의 景氣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輸出이나 經常收支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임.

## 2. 通貨金融政策

—최근의 巨視經濟狀況을 보면 설비투자의 好調를 바탕으로 景氣가 회복되고 있고, 신3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주요 輸出相對國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전망도 밝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通貨金融政策은 총수요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通貨를 지나치게 긴축하면 國內金利의 상승으로 海外資本流入과 원貨切上이 지나치게 가속화됨으로써 通貨管理가 더욱 어려워지고 國內經濟가 크게 불안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金利自由化와 資本自由化의 진전 등으로 달라진 通貨·金融與件을 감안하여 通貨量 增加率 목표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通貨政策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구3저 시기에는 經常收支黑字에 따른 通貨增發에 대처해서 통화채 강제배정, 대출창구지도 등 직접적인 관리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와같은 방법은 國內經濟의 안정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자금부족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資本流入을 더욱 촉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배분에 장애가 되었음. 따라서 환매채(RP) 등을 통한 公開市場操作 등 주로 間接管理方式에 의한 通貨政策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전년동기비 總通貨( $M_2$ ) 增加率을 관리하는 기존의 정책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 實物變數의 변동과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M_2$ 의 지표기능의 저하에 따라 市中流動性의 효율적인 조절과 물가안정의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
- 구3저 시기에는  $M_2$ 증가율에 집착하여 물가상승압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M_2$  뿐만 아니라 다양한 通貨指標를 참조함과 동시에  $M_2$ 의 增加率目標도 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資本純流入의 증가에 따르는 通貨增發과 元貨切上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資本流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資本流出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資本流入을 적정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外資導入의 우선순위를 가려 外國人直接投資 등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資本導入을 우선시 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資本流出 측면에서는 海外直接投資를 活性化하기 위해 海外投資에 대한 金融·稅制 支援을 확충하는 한편 海外證券投資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3. 財政政策

— 신3저 시기의 財政政策은 3저 현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함.

- 도로, 철도, 항만 및 부대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物流費用의 상승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자본의 유입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成長潛在力을 배양하도록 함.
-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달성하도록 産業構造調整을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技術革新體制의 확립을 위한 租稅優待

및 金融支援을 확충하도록 함.

—신3저가 경기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지만,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을 강화해야 함.

○92~93년의 민간부문의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公共投資事業의 집행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최근 民間企業의 設備投資擴大 등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므로 공공투자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公共資金管理基金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함.

#### 4. 貿易政策

—구3저 시기의 市場開放政策은 우리나라에 대한 先進國의 통상압력 및 흑자관리차원에서의 受動的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세계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3저 시기의 開放政策은 세계분업체제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라는 能動的 자세에서 이루어져야함.

—특히 신3저의 호기를 활용하여 對外與件이 불리할 때에는 추진이 어려운 貿易制度의 改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OECD가입은 우리의 제도 및 관행을 先進化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 제도 및 관행의 先進化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은 價格競爭力보다 品質競爭力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

진 상태임. 장기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品質競爭力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품질관리운동의 확산 등이 요구됨.

—한편 輸出補助金 형태의 직접적인 輸出支援制度는 국제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지양되어야하며, 輸出保險制度의 활성화, 무역어음의 활성화, 국제무역전시회의 지원확대 등 간접적 輸出관련 支援制度의 개선 및 확대방안이 요구됨.

—신3저 시기를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있어서의 構造調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저가품 생산위주의 경공업부문은 과감히 해외이전을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고가품 위주의 수출산업이 정착하도록 하여야함.

○특히 신3저 요인을 21세기 산업으로 지칭되는 技術·知識集約産業의 수출기반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한 예로 엔高에 따라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된 휴대용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의 품목에서 미국·EU시장을 중점공략하여 우리의 市場占有率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한편 구3저 시기에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0%미만이었으나 현재 그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음. 後發開途國의 개발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海外投資 擴大를 통한 經濟協力增進, 對外經濟協力基金의 확충, 연불수출자금의 지원확대 등 開途國市場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일본기업은 71년 이후 엔高가 될 때마다 海外直接投資를 확대시켜 왔으며, 86~89년의 지난 구3저 시기에 일본기업의 海外直接投資는 51~85년 동안의 直接投資 累計額의 2배를 기록하였음.

○특히 아시아開途國에 대한 일본기업의 海外直接投資는 엔高로 인한 生産費用의 引上效果를 상쇄하려는 일본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등장하였음.

○89년을 정점으로 일본기업의 전반적인 海外直接投資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開途國에 대한 일본의 直接投資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89년 이후 92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기업의 直接投資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93년 外國人直接投資 가운데 일본기업의 直接投資는 가장 높은 投資增加率을 보이면서 다시 新엔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의 일본기업의 對韓直接投資가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에 치중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高度技術이전이 가능한 제조업부문의 投資環境改善 努力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일본기업의 對韓直接投資는 일본기업이 보유한 고도기술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技術移轉의 효과를 가져와 국내기업의 技術競爭力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餘他 아시아開途國보다 유리한 投資環境을 조성하여 일본기업의 對韓 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 구3저 시기의 기업들은 당시의 價格競爭力 향상에 安住하여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지 못함으로써 구3저 이후에 급격한 競爭力 弱화를 경험한 바 있음.

○ 따라서 신3저 시기의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價格優位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構造調整, 技術革新, 經營革新, 原價節減 등을 통한 國際競爭力 향상에 노력해야 함. 특히 신3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3저가 끝날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 研究開發投資의 擴大

○ 3저 要因에 의한 기업이익의 증가분을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투자하여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의 개량을 도모하고 新技術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3低 要因이 사라진 후에도 技術競爭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企業의 리스트럭처링

○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品質競爭力 提高에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研究開發投資의 확대와 더불어 競爭力이 상실된 분야에 대한 과감한 매각 및 海外移轉, 그리고 業種專門化를 통한 수출상품의 고급화노력이 필요함.

### — 海外進出의 擴大

○ 元貨切上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더욱 증대함. 또한 엔高의 영향으로 일본기업 등의 동남아진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輸出市場 競爭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低賃金과 안정된 경영조건을 가진 나라에의 진출이 긴요함.

#### 安定的인 勞使關係의 維持

- 87년 하반기부터 크게 확산되었던 勞使紛糾는 90년부터는 크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安定된 勞使關係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企業들은 賃金 이외의 근로자처우개선 등을 통한 同伴者的인 勞使關係를 형성함으로써, 근로자의 權益保護와 賃金水準의 적정화를 동시에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임.

#### 日本企業과의 戰略的 提携 모색

- 엔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과의 協力を 모색하는 일본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기업은 후발개도국에 비해 기술, 기능인력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日本企業과의 戰略的 提携를 통한 競爭力強化 방안을 모색해야 함.

#### 國際通商規範의 준수

- 국제적인 通商摩擦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덤핑輸出의 자율적 규제, 國際標準制度의 준수, 외국기업의 知的財產權의 존중 등 多者間, 雙務間의 통상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 KIEP 發刊資料 案内

###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 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鎭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4-01	戰略的 提攜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b>■ 政策資料</b>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の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 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の 金融自由化와  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鉞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Jin-Soo Yoo,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政策資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

1994年 5月 6日 印刷

1994年 5月 7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 報 告 書 內 容 의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書 禁 止

ISBN 89-322-2007-7